



▶ 2006. 11. 24배 포
총 2쪽

보 도 자 료

- ▶ 고용보험정책팀 이재운 팀 장
임 섭 사무관
- ▶ ☎ 503-9750~1
- ▶ E-mail : limseop@molab.go.kr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고용·산재보험기금 여유자산 해외펀드 등에 투자키로

- 노동부는 고용·산재보험 기금운용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「해외펀드 및 ELF」를 12월부터 도입, 운영하기로 했다.

※ELF(Equity Linked Fund)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,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파생상품(옵션, 선물 등)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.

-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해외펀드 2개, ELF 2개 등 모두 4개로 해외 펀드는 푸르덴셜자산운용·PCA투신운용이, ELF는 KB자산운용·유리자산운용이 각각 1개 상품씩을 맡아 12월 중순부터 총 2,500 억원 내외의 자금을 운용하게 된다.
- 노동부는 그동안 투자대상을 국내 주식과 채권으로 한정시켜 왔으나 금융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익률 향상과 안정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.
- 노동부는 기존 상품군과 상관관계가 낮은 해외시장에 투자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투자의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수익률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노동부는 펀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용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한편, 운용사 및 증권사와 정기적으로 운용전략 및 리스크 관리문제를 협의하는 등 세심한 사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.
-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는 “노동부라는 대형기관이 해외펀드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타 기금들의 해외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평가하고, “이제 국내 기금들도 투자수익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”고 말했다.
-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“한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낮은 국가에 분산하여 3~5년간 장기투자할 계획”이라고 소개하고 “해외펀드 및 ELF 등의 도입으로 투자상품의 다양화 및 수익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